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평가 ;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을 중심으로

Understanding and Valuation on the Community as a Kind of Alternative Family ; With Emphasis on the Kibbutz and the Americian Commune

오산전문대학 여성교양과
전임강사 : 丁 海 恩

*Dept. of Woman's Culture
Osan Junior College
Instructor : Hae Eun Cheong*

— 목 차 —

I. 서 론	2. Commune
II.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	1) 농촌 Commune-Twin oaks commune
1. 대안가족	2) 도시 Commune
2. 공동체	IV. 평가 및 제언
III.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에 대한 이해	참고문헌
1. Kibbutz	

=ABSTRACT=

According as the modern form of the family becomes nuclearized, inevitable is the isolation of the family. The relationship of the neighborhood and the kinsmen are being dissolved, making the isolated and unsteady nuclear family.

We need a community in the modern society, for we are facing a lot of social problems as the nuclear family. The problems are as follows ; the rearing of the children, the alienation of a woman and the woman's roles in the society. In addition to those problems, there are also such some other problems as the alienation of the old man and the social roles of them.

That is to say, the community appeared as a kind of attempt to overcome the above-mentioned problems. Kibbutz may be called an enlarged family to function as one family even though it is not just a blood relationship.

The American commune is a large family community as a group to overcome the alienation and solitude of the nuclear family. On the other hand, the urban community is the small-scaled and cooperative family to solve the problem that the modern nuclear family is a unit living solitarily and unsteadily. But in fact, even in such a community, there are much tension and conflict against its establishing purpose.

In my opinion, if those communities have to surmount the tension and conflict which are derived from the process in a bid to overcome the troubles like the alienation and solitude of the nuclear family. The bond of family must be consolidated among all the members of the community. And then the community may be co-existed with the traditional family as the alternative family in the future, which can supply the deficiency of the unsteady unclear family.

I. 서 론

가족을 두가지 형태로 크게 구분하면 결혼과 혈연관계를 기반으로 한 부부중심의 핵가족과 친척들과 동거하는 확대가족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이효재, 1983: 24).

이러한 가족구조는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점차 확대가족에서 부부중심의 핵가족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현대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그 고립은 피할 수 없게 되고, 이웃과 친족 체계가 붕괴되어 고립된 핵가족(T. Parsons, 1949) 불안정한 핵가족(Le Play, 1935)이 되어가고 있다. 본래 가족의 특성(최재울, 1988: 17; 유영주, 1983: 30-32)이 성원간의 일차적 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폐쇄적이고 형식적 집단인데다 가족구성원의 감소추세에 힘입어 다기능적 가족의 역할이 축소·약화되었다. 특히 가족원간의 정서적 기능, 자녀의 사회화 등에 타격을 받게 되었다. 가족윤리의 혼돈과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로 현대 핵가족은 위기를 절감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전통적 가족에 나타난 위기는 20C를 전후한 현대화, 도시화, 산업화를 특색으로 하는 산업사회의 구조적 모순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친밀하고 따뜻한 전 인격적 인간관계는 날로 소멸되고 경쟁과 이해타산과 물질주의가 날로 격화되어 업적 위주의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Arlene Skolnick, 1983; D. Bell, 1976). 이렇게 사회가 비인간화 되어갈 수록 가족생활에 대한 기대와 이상화는 더욱 강하게

요구되며, 부부중심으로 살아가는 현대의 핵가족은 이러한 기대와 이상을 이루기에는 너무 약하고 불안정하며 고립되어 있다.

따라서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며 공동체적 유대를 지속시키기 위해 국가마다 가족복지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실천하거나 사회운동의 차원으로 새롭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관계와 생활양식이 모색되고 있다. 부부나 친족관계의 결속이라기 보다는 “친밀한 환경으로서의 가구(Household as Intimate Environment)나 수정확대가족(Modified extended family)과 친족망(Kin Network)과 같은 개념을 제안하고 있다(Arlene Skolnick, 1983).

구미에서는 지난 60~70년대를 통하여 핵가족이 위기를 절감하였을 때 일부 젊은이들 사이에서 가족생활과 정서적 안정의 복구를 위해 여러가지 형태의 소공동체적인 확대가족을 시도하게 되었다. 설립동기에 있어서 차이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Kibbutz 역시 하나의 성공적인 공동체운동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구미나 이스라엘의 경우처럼 공동체적 삶의 형태가 가족의 대안적 시도로서 강하게 행해지고 있지는 않지만 “풀무원”이 1975년부터 노동과 신앙을 중심으로, 복음자리 마을이 1977년부터 신앙과 인간화운동을 중심으로 공동체가족을 이루고 있다(김태현, 1989).

이제 현대가족의 대안으로서 공동체에 대한 지대한 관심은 그 어느때 보다는 고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스라엘의 Kibbutz와 미국의 Commune(농촌과 도시)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에서 전통가족

의 대안적 시도로서 공동체적 삶에 대한 전반적인 윤곽을 잡아보고 이에대한 평가를 통해서 가족생활의 의미를 재음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II. 대안가족으로서의 공동체

1. 대안가족

산업화가 어느국가에서나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면 가족의 변화도 필연적으로 오게 되어서 이제까지 사회를 구성하는 보편적 가족형태라 여겨왔던 핵가족, 확대가족등의 전통가족이 미래사회에도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갖지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구조·경제구조의 변화로 확대가족에서 핵가족으로 변모되고 있는 현사회에서는 가족구성을 결혼과 혈연관계에 기반한 부부와 그 자녀들로만 제한한 핵가족만으로는 다양한 가족생활현상을 다 설명할 수는 없다. Suzanne keller는 "Does the Family have a future?"에서 오늘날의 가족은 적어도 3가지 근원으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 첫째, 결혼에서의 축적된 실패와 모순, 둘째, 변화하는 일의 본질, 출산조절의 보급, 변화하는 성관계, 변화하는 직업적 교육적경향, 셋째, 생물학에서의 새로운 발달로부터 도전을 받고 있다고 했다(Skolnick, 1986 : 524) 이러한 상황에서 현대의 핵가족은 지역사회, 이웃, 친족집단으로부터 고립되어 자녀양육문제, 여성소외와 역할갈등 문제, 노인소외와 역할갈등 문제등의 핵가족이 갖는 모순이 더욱 드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핵가족의 불안정성과 모순을 보충할 만한 대책 및 사회복지시설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다양한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불안정한 현대 핵가족의 대안으로서 미래사회에서 증가하리라 보는 가족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신(single hood), 둘째, 동거가족(cohabitation family), 셋째, 자발적 무자녀가족(voluntary childlessness), 넷째, 편부모가족(single parent family), 다섯째, 재결합가족(blended family), 여섯째, 계약결혼(commuter marriage), 일곱째, 개방결혼(open

marriage)과 집단혼(group marriage), 여덟째, 동성애집단(homosexual union), 아홉째, 공동체 가족(commune life), 열번째, 수정핵가족(modified nuclear family)과 수정확대가족(modified extended family)등을 들 수 있다(E. MacKlin & R. Rubin, 1983 : 2-266 ; R.M. Kanter, 1972 : 173-179 ; Larry. L. & J.M. Constantine, 1972 : 284-322 ; M.E. Spiro, 1972 : 81-92 ; Bert N. Adams, 1980 : 406-411 ; Arlene skolnick, 1983 : 125-141).

이상과 같은 다양한 가족형태중 특히 부부간의 친밀한 관계를 희생시키지 않으며 비혈연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공동된 가치관이나 인간적 유대와 이념적 동지로서 공동생활을 하는 오늘날 흔히 「가족」이라 불리는 공동체생활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공동체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공동체연구가 급격히 고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20세기 후반부터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1950년대 부터이다. 이때 부터 현대자본주의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 극도로 커짐에 따라 소외된 집단들이 누적되고 일예로서 미국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commune운동이 활발해졌다. 이런 사회적 동향에 힘입어 공동체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서는 우선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하고자하며 그이후 여러가지 접근방법으로 설명하는 공동체이론과 역사를 살펴보겠다.

1) 개념으로서의 공동체(Dennis E. Poplin, 1979 : 1-25 ; 신용하, 1987 ; 14-23)

학자들은 "공동체"라는 용어를 포괄적으로 구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따라서 종교공동체, 학문공동체, 시인공동체, 군사공동체등 사회전반적인 현상에 공동체라는 용어를 두루 사용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다.

이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공동체를 타인과의 일체가 되어 협동적 관계를 맺고자 하는 심성적·정신적 현상과의 관계를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심성적 공동체와 대중사회를 대조적인 개념으로 전제한다. 공동체에서는 일체감, 심성적통일,

자발성, 전체성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을 갖는 반면 대중사회에서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소외, 심성적단절, 비참여, 분절화를 특징적 요소로 한다. 심성적공동체의 특징인 일체감은 성원들이 의미있는 집단에 속하고 있다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으며,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고 있음과 공동체의 다른 성원들과 하나임을 느낀다(심성적 통일성). 또 이들은 여러 하위집단들에 매몰되어 있으며 이러한 집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강력한 요구를 지니고 있다(자발성). 또한 서로서로를 본래적인 의미와 가치를 지닌 전인격이라고 생각한다(전체성). 반면 대중사회의 성원들은 의미있는 집단의 결사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것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으며(소외), 다양한 목표들을 추구하면서 대중사회의 다른 성원들과 하나임을 느끼지 못한다(심성적 단절). 또한 의미있는 집단에의 참여가 없으며 다양한 집단들의 집합적 활동들에 참여하려는 충동을 느끼지 못하며(비참여), 서로를 목적에 대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개개인에 어떠한 본래적인 가치나 의미를 두지 않는다(분절화).

둘째, 공동체를 지역과 결부된 조직체의 단위들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인간이 공간을 뛰어넘을 수 없기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며 사회적·심리적 욕구충족이 근린성(nearness)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형성된 것이라고 보아 공동체를 무엇보다도 공간적 단위로서 특정한 지역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집단으로 본다.

2) 공동체이론의 역사(李榮薰, 1982 : 15-121 ; 신용하, 1987 : 102-154)

이성의 시대인 18세기의 사회사상가들은 중세사회의 봉건성과 불합리성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역사상 실재로 존재했던 각종의 공동체가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고 억압했음을 발견하고 이를 날카롭게 비판하면서 사회는 사회계약에 의한 결합의 원리에 의거해서 이성적으로 조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19세기에 들어서서 사회사상가들은 시민혁명과 산업혁명을 통하여 얻은 것은

개인의 자유와 기계생산이었고, 잃은 것은 공동체적 삶과 형제애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그결과 19세기 사회사상가들은 공동체의 가치를 재발견하게 되었다.

특히 콩트(August comte)는 공동체의 실체를 규명하고자 공동체의 원형을 “가족”에서 발견하였으며, 퇴니스와 베버는 연구를 실체로 부터 유형론으로 전환시켜 공동체를 밝힐 수 있는 여러가지 개념과 분석도구를 정립하였다. 19세기 사회학자, 사회사상가들은 이렇게 공동체를 재발견하고 사회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인 사랑, 헌신, 우정, 협동, 유대등이 공동체로 부터 산출된다는 것을 밝혔으며 미래사회가 공동체적 사회로 건설되어야 한다는 전망을 확고하게 정립해 주었다. 사회학자들 사이에서 공동체 연구가 급격히 고양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된 20세기 후반부터이며 더 구체적으로는 현대자본주의 모순이 극도로 첨예화된 1950년대 부터이다. 이시기에는 미국에서 Com-mune운동이 격화되고 있었고 이스라엘에서도 Kib-butz가 어느정도 궤도에 올라있던 때 이었다.

초기공동체는 피난처와 희망이라는 유토피아적 신념을 가지고 유토피아적 갈망을 성취하기위해 모인 형태였다. 유토피아적 공동체는 정치, 경제, 사회생활전부가 공동체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공동체에 의해 중앙집권적으로 조정될 것이며 동시에 가사단위(규모가 큰 확대가족), 생산단위(농장, 기업), 행정단위(촌락, 읍), 종교단체일 수도 있다. 공동체는 자체구성원들에게 봉사하기위해 움직이며, 공동체가 외부에 제공하는 이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차적인 것이며 공동체 자체의 자급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다.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관계는 집단적 유대를 유지하기위해 구성원과 외부세계, 공동체와 외부세계와의 관계보다 더 중요하다. 즉 유토피아적 공동체는 가족, 일차집단, 단체, 지리적으로 정의되는 지역사회, 그리고 전체적인 사회와 공통분모를 가진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그 크기에 있어 하나의 가족처럼 6~7명으로 구성된 작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촌락처럼 천명이상의 큰 규모로 구성될 수도 있다.

III. Kibbutz와 미국의 Commune에 대한 이해

가족의 대표적 대안형태로 공동체운동의 움직임 을 생각할 수 있다. 공동체를 크게 나누어 Commune과 Kibbutz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 동기에 있어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Kibbutz가 Commune보다는 더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Commune과는 달리 Kibbutz운동이 이스라엘 전반에서 고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전제로하고 두 공동체의 배경, 특성, 문제점 등을 살펴보겠다.

1. Kibbutz(M.E. Spiro, 1956 : 1-292 ; M. Gordon, 1972 : 81-100 ; T. Bergmann, 1980 : 1-227)

Kibbutz는 이스라엘에 있는 세가지 유형의 협동적 농촌부락중의 하나로, 이들 유형은 공동생활의 범위나 집단적 소유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첫째, 모샤브 오브딤(Moshav ovdim)은 노동자 부락으로 전도지가 유대인 국가기금(The Jewish National Fund)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각 가족은 할당된 구획을 경작하고 거기서 나오는 소득은 자기의 것으로 보유하는 농촌부락으로 “부분적 협동의 예”이다. 둘째, 키부츠(Kibbutz)는 공동체로 극소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재산이 집단적으로 소유되고 작업은 협동적으로 조직화되고 어린이 양육을 포함한 생활설비조차도 상당정도 협동적으로 짜여져 있는 농촌부락으로 “종합적인 협동”의 표본이다. 셋째, 모샤브 쉬투피(Moshav shitufi)는 키부츠와 모샤브 오브딤을 절충하는 방식으로 키부츠의 공동소유와 공동작업에 모샤브 오브딤의 개인적 생활을 결합한 형태이다. 키부츠는 이 세가지 유형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가족공동체로 잘 알려져 있다.

키부츠문화의 도덕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이상은 첫째, 노동의 도덕적 가치로 육체노동 그 중에서도 농업노동이 가장 가치를 인정받는다. 둘

째, 공동체 전체가 생산하고 사용하는 재산은 모두가 그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이다. 셋째, 사회경제적 평등원리이다. 넷째, 개인적 자유의 원리이다. 다섯째, 집단의 도덕적 가치의 원리로 개인의 이해와 이익은 집단의 이해와 이익에 종속되고 집단생활과 집단적 경험이 개인의 것보다 훨씬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것들은 Kibbutz의 도덕적 기초를 이루는 시온주의와 함께 사회적 윤리를 구성하는 또 다른 도덕적 기초인 사회주의의 기본교의를 나타내는 것이다.

Kibbutz는 이스라엘에 있는 농업집단으로 개인의 자유보장, 남녀평등, 연령평등 등의 평등을 전제로 하여 공동의 생활방식, 모든 재산의 공동소유, 아동의 공동양육을 특성으로 하는 공산사회 구현을 목적으로하는 집단이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원칙을 파괴하지도 않고 평등을 유지하기위해 공산인 사회이다.

Kibbutz는 전통적인 개인주의적 경작방식을 철저히 배제한다. 한 촌락이 공동가계로 대농장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키부츠의 구성원들은 하루 8~9시간의 노동을 한다. 이들은 철저한 평등주의적 원칙에 따라 의식주와 문화생활, 자녀양육, 교육, 노후, 의료문제를 공동적으로 해결하게 된다. 성에 의한 노동의 분배도 철저하여 남자는 농경분야나 기계·농기구·트랙터등을 다루는 농업분야에 더 많이 종사하고 여자들은 교육이나 부업일, 세탁등의 서어비스분야에 더 종사한다.

해가족의 보편성을 주장하고 있는 Murdock은 결혼은 상당히 영구적인 성관계가 유지되고 노동의 경제적 분배가 실행되는 이성간의 상호작용이 수반되는 것이라 했다. 성관계가 사회적으로 승인을 받고 있는 Kibbutz에서의 부부관계는 이 두가지 기준중 단지 성적독점만 적용되고 경제적협력은 수반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부부각자는 Kibbutz 경제의 한 분야에서 일하고 각자는 Kibbutz의 구성원으로서 Kibbutz가 배당하는 똑같은 몫의 서어비스와 이익을 받는다. 그러나 이때 남자는 오로지 부인의 욕구충족을 위한 경제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여자도 오로지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Kibbutz 전체를 위해 요리하고 바느질하고 빨래한다.

그러면 Kibbutz 부부관계의 본질은 무엇인가? 먼저 Kibbutz의 배우자선택을 보면 혼인이라는 복잡한 절차가 필요없이 공동체에 보금자리를 요구 하고, Kibbutz가 인정하면 그들의 결합은 사실상 승인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첫아이가 태어나기 직전이나 직후에 Kibbutz couple(Kibbutz는 전통적 marriage에 대한 대체용어로 couple을 사용) 들은 결국 그 사회의 결혼법에 따라 결혼하게 된다. 왜냐하면 혼인이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그 사회의 법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갖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couple이 된다는 것이 Kibbutz에서 남자든지 혹은 여자든지 간에 그들의 책임이나 지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couple이 되기전에 종사해 왔던 경제의 한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하며, 각자의 법률적인 지위, 사회적 지위는 그대로 남는다. 여자는 결혼전의 성(姓)을 그대로 사용하며, 그녀 자신의 권리에 의해서 Kibbutz의 한 구성원으로 간주될 뿐이다. 즉 couple사이에 성적인 독점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경제적 협력은 수반되지 않는다. 그러나 경제적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couple이 되려고하는 동기는 이러한 관계가 신체적 친밀성 이외에 친구 사이, 안심, 의존, 원 조등과 같은 심리적 친밀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Kibbutz couple은 이러한 두가지 종류의 친 밀성이 하나의 관계로 결합될 때 생긴다.

또한 Kibbutz의 couple에게는 자녀양육문제가 수반되지 않는다. 즉 아동의 신체적 보호와 사회적 양육이 부모의 책임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아동은 병이 났을 때 부모에 의해 보호되어지고, 특별한 아동의 집에서 먹고 자고 옷을 얻는다. 이것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체적 복지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아동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을 공동체에 위임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교육과 사회화에 대한 가족의 책임은 부모가 아니라 부모와 교사의 기능이다. 유아는 엄마가 직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유아의 집에 있게되며 거기서 부모의 보호를 받는다. 출생후 6개월까지는 부모의 방으로 데려가지 못한다. 아기는 1시간동안 부모와 함께 지내는데 아기가 좀 더 커지게 되면 부모와 보내는 시간이 증가하게되고 하루중 언제

라도 부모의 방으로 갈 수도 있으나 소등전에는 아동의 집으로 돌아와야만 한다. 아이들이 더욱 성장하면 동료들과 함께 유치부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부모에 의해 관리되어지는데, 부모는 훈육의 대부분을 시작하고 기초적인 사회적 기술을 가르치고 사회화에 대한 책임을 진다. 아동은 초등부, 중학교, 고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점차 Kibbutz의 경제적 생활에 접하게 되어 1시간에서 3시간 가량 성인의 관리하에 있는 경제분야중의 한곳에서 일하게 된다. 아동의 경제적 기술습득은 사회적 기술습득처럼 부모가 아닌 다른 성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보편화는 가치습득에서도 적용되어 초기에는 부모에 의해서 나중에는 교사에 의해서 습득되고 중학교에 들어가면 "homeroom teacher"와 inter Kibbutz youth movement의 leader에게 위임된다. 그러나 이렇게 부모가 자녀의 사회화와 양육에 두드러진 역할을 하지않는다고 해서 자녀들의 삶의 중요한 표상이 되지않는다고 결론을 내리는 것은 잘못이다. Kibbutz내에서 부모는 아동의 심리적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부모는 자녀의 가장 중요한 동일시의 대상으로 제공되며 다른사람으로부터 얻을 수 없는 사랑과 안정감을 제공해 준다.

이제는 Kibbutz가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Kibbutz의 내부에는 보이지 않던 갈등들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공동소유의 원칙에 따르다 보니 사적으로 필요한 의복이라든지 생활도구에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구조상으로 핵가족이 하나의 단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자녀들은 부모의 뜻에 불순종하는 경향을 보이며, 평등을 기본전제로 하는 Kibbutz에서 평등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가 오히려 불평등을 초래하며 성차별(sexism), 노소차별(ageism) 등이 나타나고있다. 특히 여성문제와 노인문제는 점차 큰 갈등문제로 표면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Kibbutz여성의 88%라는 압도적인 수가 서서비스분야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들의 대부분은 이러한 Kibbutz 내부의 성별분업에 갈등을 느끼고, 직책상의 만족을 얻지 못하며, 전통적인 가사일보다 더 힘들고 보람이 적은 일로 여기게 되면서 가족내에서도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역할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하였다.

2. 미국의 Commune

미국의 공동체는 1680년 광야로 은둔해간 종교적 분파로부터 오늘날의 도시 Commune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였다.

역사적으로 볼 때 3가지 부류의 비판(종교적, 정치경제적, 심리학적 사회비판)이 유토피아를 탐색케하는 추진력이 되었다. 우선 종교적면에서 보면 미국에서의 최초의 공동체 건설자들은 조화와 협동, 동료신자들과의 긴밀한 유대론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성서진리에 기초한 영적사회의 창조인 종교적 이상에서 출발하였다. 둘째, 정치 경제적면에서 보면 산업혁명에 뒤이어 확대된 혼란, 기계화, 인구과밀, 빈곤현상과 더불어 출현하게 되었으며, 소규모의 사회주의 공동체를 추구하고, 역사상 1840년대에 일어났다. 세째, 심리학적 사회비판면에서 보면 현대사회가 사람들을 타인과 자기자신의 기본적인 본성과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성취에 대한 기성사회의 강조를 거부하고 자기실현, 인격성장을 신조로 삼고 있다. Walden Two, 시나는, Encounter group 등이 있다.

위와같은 3가지 흐름중 종교적 테마는 1845년경까지 지속되었고 정치, 경제적인 입장은 1820년대~1930년까지 지속되었으며, 사회심리학적 입장은 제 2차 세계대전이후 출현하게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특히 1960년대에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기성질서를 죄 많고 정의롭지 못하며 불건전한 곳으로 단정하여 거부한 점이다. 19세기 공동체는 헌신, 중앙집권, 철저한 통제가 특징이었지만 재해, 부채, 불화, 환경의 변화, 노령화, 사회생활의 유인등으로 사멸, 정식해체 혹은 재편성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날의 공동체는 과거의 유토피아적 신념으로부터 많이 후퇴되었다. 과거는 대안사회를 원했지만 현대는 대안가족을 추구하고 있으며, 범위가 과거보다 축소되었다. 그래서 오늘날의 집단은 흔히 가족이라 불리며, 삭막한 도시생활에서 가족적 의미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형성된 도시공동체와 대가족적 협

동집단인 농촌 공동체가 가족에 대한 대안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

1) 농촌 Commune(김윤, 1983 ; 이효재, 1983)

농촌에 정착한 전형적인 공동체를 예로 들면 Twin oaks commune이 있다. 이 Commune은 평등과 정의를 가족공동체의 이념으로 삼고 1966년 8명의 20대 청년들로 시작되어 점차 컴퓨터 과학자를 위시하여 더 많은 직업인들이 참여함과 동시에 농장을 구입하여 1971년에는 36명의 식구들을 수용하는 대가족으로 확대되었다. 이들은 농업을 주로 경영하는 한편 수직물을 만들어 팔며 8명의 회원들이 각자의 직장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공동의 가계를 꾸려가고 있다. 이들은 1~2명의 자녀를 둔 부부들의 가족, 모자가족 및 독신자들로 구성되어 어른들은 개인으로서 각자의 방을 지니고 사생활의 독립을 누릴 수 있게 하였다. 그러나 생산적 노동, 의식주를 위한 소비생활과 가사노동 및 자녀양육 등에 관련된 필요한 일들은 분담하여 수행하며 식사와 오락활동에는 가족적으로 다 함께 참여한다. 어린자녀들의 양육은 공동으로 책임지고, 모든 재산과 가구는 공동으로 소유하며 모든 생활도구도 공동으로 사용한다.

이들은 여러 핵가족이 모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고 있으며, 경제적인 생산노동과 소비생활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며 다함께 생활의 안정과 보장을 누린다. 이로써 핵가족들은 더 큰 공동체 유대속에서 온정적인 관계를 누리며 핵가족 속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려는 것이다.

2) 도시 Commune(R.M. Kanter, 1979 : 112-135)

농촌지역의 대가족공동체와는 달리 도시공동체는 젊은 전문직업인, 편부모, 몇몇의 중산층가족으로 구성된 8~10명 정도의 소규모의 협동적 가구를 이룬다. 집단적 세대, 공유된 가정, 확대된 가족을 창조하기 위한 것이 그 일차적 목적이기 때문에 친교이외에는 아무런 특별활동도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친밀성외에는 어떤 특수한 가치관도 부재상태이며, 저녁 주말외에는 대개의 시간은 공유되지 않는다.

도시공동체 구성원은 다른 직장인과 마찬가지로 도시에 있는 일터로 출근을 한다. 즉, 도시공동체는 미국의 오랜 공동체 역사 및 전통적인 가족가치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핵가족이 보여주는 위기는 공동체 세대를 급증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또한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가족문제는 도시공동체 형성을 가능케하여 그결과 전통적가족이 붕괴되기 시작했다.

최초의 도시공동체는 히피적인 자유분방한 학생들이 사는 구역에서 시작되어 이제는 편안한 보금자리를 마련해줄 수 있는, 교외나 준교외로 나아가게 되었다.

공동체자체는 우리가 “가족”이라고 하는 데서 일어날 변화를 예고해 주는 특정한 생활양식을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다. 가족생활은 더 공개적이 되고 단위로서 핵가족을 구분하는 경계가 흐려지며, 가장 밀접한 인간관계, 특히 남녀관계나 부모자식관계가 개인성을 덜 띄게된다. 서로 남남끼리 모여서 동등한 권리를 가진 어엿한 식구로서 도시에 한가족을 창조해 내고 서로의 사적인 생활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하는 특수한 결합체는 새로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생활을 보면 전형적으로 소비생활에서만 공동가계를 운영한다. 재각기 다른직장을 다니며 별도의 수입을 벌어들이지만 공동의 수입으로 삼지않고 공동가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각자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공한다. 자녀양육과 의식주를 위한 가사노동은 가족원들이 협동적으로 분담하여 수행한다. 즉 소비생활의 협동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들은 특히 공동의 식사시간을 통하여 가족적 유대와 화합을 누리는데 중점을 둔다. 또한 가족원을 위한 의료비용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구성원이 병이 났을때 치료비뿐만아니라 보살피 줄 가족원까지 보장받게된다. 자녀양육을 위해서는 공동으로 여러어린이를 함께 기르는 대가족적인 장점을 맞출 수 있음으로 직업여성은 이중역할갈등을 줄일 수 있고, 전담주부는 핵가족의 불안정속에서 겪는 소외감을 어느정도 극복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공동체 아이들은 어른과의 관계가 보다 용이하며 부모자식간의 유대 또한

친밀하고 강하다.

즉, 도시속에서 핵가족이 친족과 지역사회와의 유대에서 단절된채 불안하고 고독한 단위로 살아 가야 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입장인 것이다. 그러나 도시 공동체 자체가 생물학적 성별과 연령에 의해 자연적으로 역할배정이 결정되지 않고 의도적, 자의적으로 조직된 상호지지관계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대안적형태라고 반드시 생각되지는 않는다. 구성원간에는 잠정적, 일시적인 관계에 근거할 뿐 아니라 갈등등 역기능적 관계가 많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새로운 가족관계를 실험하는 하나의 실험적 시도라 할 수 있겠다.

IV. 평가 및 제언

인류사회에 나타난 가족형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눌 수 있다. 부부와 미성년 자녀들로 구성된 핵가족과 친척들과 동거하는 확대가족이다. 핵가족은 여러 미개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보편적 형태이기는 하나 사회구조와 경제구조의 변화로 더욱 일반화되어지는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와 더불어 가족생활과 가족관계에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공동체는 이러한 가족위기의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이 직면한 문제와 제한점을 서로 협동적으로 극복해 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는 이제까지 제시된 Kibbutz와 Commune에 대한 토의를 기초로 하면서 앞으로의 가족에 대한 대안적시도로서 공동체의 位相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각 공동체와 이 사회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전통적 가족인 핵가족의 기능을 비교, 평가해 보면 첫째, Kibbutz의 중요한 특성은 남녀평등을 전제로한 공동생활방식, 재산의 공동소유, 아동의 공동양육이다. Kibbutz의 부부관계는 부부간의 성의 독점과 共住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부부만을 위한 경제적협력은 이루어지지 않고있고, 핵가족의 이러한 기능은 Kibbutz라는 집단 자체가 부부를 대신하여 행하고 있다. Kibbutz의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는 전형적인 핵가족의 기능이었던 자녀와의 共住, 자녀의 신체적보호, 사회적양육의 책임을 수반하지 않으며 이러한 기능은 Kibbutz 자체가

행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자녀간의 심리적 유대관계는 무엇보다 강하다. 또한 Kibbutz 구성원들은 서로를 Kin으로서 인식하며 배우자선택시 족외혼(group exogamy)을 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즉 Murdock이 핵가족에서 지적인 구성원간의 근친상간 회피가 Kibbutz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심리적으로 서로하나의 가족으로서 생각한다는 것이다.

즉, 전형적인 핵가족의 기능의 특성들은 바로 전체 Kibbutz 사회의 기능이 된다. 이는 Kibbutz 자체가 하나의 가족으로서 기능하는 비혈연적 확대가족이라 말할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Kibbutz도 내부의 몇가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Kibbutz로부터의 이탈빈도가 증가되면서 일할 사람의 부족, 사회적·정신적 생활의 부족, 사유재산의 점차적 증가, Kibbutz내부의 성별분업에 따른 갈등과 경제적 역할불평등과 어머니와 여성으로서의 역할갈등문제등의 여성문제가 드러나며, 평등에 대한 극단적인 강조가 오히려 노인소외와 불평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Kibbutz의 설립목적과 위배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이상적 Kibbutz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평등, 개인적 자유의 성취가 아무런 긴장이 없는 집단이 만들어낸 유기체적 공동체일 것이며 이렇게 될 때 가족의 대안으로 확실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농촌공동체도 여러 핵가족이 모여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려는 공동체적 가족을 형성하고 있다. 경제적 생산노동과 소비생활의 역할을 조직적으로 영위하며 다함께 생활의 안정과 보장을 누림으로써 핵가족들은 더 큰 공동체 유대속에서 온정적관계를 누리며 핵가족속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려는 집단으로 대가족적 공동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도시공동체는 도시속에서 핵가족이 친족 및 지역사회와의 유대에서 단절된채, 불안하고 고독한 단위로써 살아가야하는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입장으로 소규모의 협동적 가족을 구성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동체도 내부에 긴장과 갈등이 발생되고 있다. 우선 가족생활의 협동이 소비생활을 기반으로 영위되고 있다. 둘째, 함께 속해 있다는

자연스러우면서도 정서가 담긴 감정에서 의식적, 조직적인 감정으로 전환되고 있다. 셋째 자발성과 질서간에 나타나는 긴장은 공동체주의를 불안정한 형태로 만든다. 넷째, 공동체는 동조하도록 압력체의 구실을 하는 집단이 갖는 독재에 직면하게 된다. 다섯째, 집단의 욕구가 개인적 욕망과 충돌하여 긴장을 야기시키게 된다. 여섯째 공동체 내부의 관계만큼이나 공동체 외부에 대한 애착때문에 종종 긴장의 불씨가 야기된다. 이와같은 긴장과 갈등이 공동체 내부에서 발생되기때문에 가족대안으로서의 안정과 영속성은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20세기를 전후한 산업사회의 도래는 가족의 기능상실과 쇠퇴를 가져와 확대가족뿐 아니라 핵가족도 쇠퇴하리라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parsons는 특히 핵가족이 친족집단으로부터 고립되고 많은 가족 기능상실이 일어나고 있으므로 현대사회에서 핵가족은 더욱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Sussman, Gibson, Litwak등은 현대사회의 전형적인 가족구조로서 핵가족 대신 수정확대가족, 친족망과 같은 개념을 제안하고 더 나아가서 부부나 친족관계의 결속이라기보다는 구성원 상호간의 정서적 유대가 강조되는 “친밀한 환경으로서의 가구”를 주장하며 이러한 형태가 현대가족의 고립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여러가지 가족형태가 나타나고 있는바 앞서 대안가족의 형태로 제시된 공동체들이 아직은 새로운 가족관계를 시험하는 하나의 시도이지만 핵가족의 소외와 고독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속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긴장과 갈등등을 해결해 나가면서 공동체 구성원의 가족적 유대가 더욱 깊어지고, 나아가 핵가족의 불안정성을 보완해 주게되면 Sussman등이 제안한 “친밀한 환경으로서의 가구”처럼 미래에는 전통적 가족과의 협조체제로써 함께 병존할 수 있으리라 본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가족과 더불어 핵가족제도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기되고있는 한울타리안에서 부모자녀간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며 함께 동거하는 수정핵가족과 별개의 가구를 마련하여 근거리에 살면서 실지로는

한집과 같은 왕래와 협조를 하며 친밀한 유대관계를 이룩하는 수정확대가족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사회에의 정착방법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김두현(1949). 한국가족제도연구. 을유문화사.
- 2) 김 윤(1983). 공동체란 무엇인가. 서울: 심설당.
- 3) 김혜선(1986). 가족관계학. 한국방송통신대학. 형설출판사.
- 4) 박금순(1989). 미래가족과 여성(건전가정 심포지움 시리즈 9), 사단법인 한국부인회 총본부.
- 5) 신용하(1987). 공동체이론. 서울: 문학과 지성사.
- 6) 유영주(1984). 신가족관계학. 서울: 교문사.
- 7) 이영훈역(1982). 공동체의 기초이론. 서울: 돌·배개.
- 8) 이효재(1983). 가족과 사회. 서울: 경문사.
- 9) 이효재(1989). 가족연구의 관점과 쟁점. 서울: 까치.
- 10) 이효재역(1985). 유토피아로의 모험. 대한기독교서회.
- 11) 이장호역(1985). 윌텐투-심리학적 이상사회. 서울: 심지사.
- 12) 최재석(1982). 한국가족연구. 서울: 일지사.
- 13) 최재율(1988). 가족사회학. 전남대학교출판부.
- 14) B.N. Adams.(1980). The Family: Alternative life styles, three alternative to the Family, 3rd ed. Chicago: Rand McNally. College publishing company.
- 15) C. Wright Mills.(1983). Social Change and the Intimate Environment pp.97-24 in Arlene Skolnick(ed.), The Intimate Environment. Little Brown and Company.
- 16) E. Macklin. & R. Rubin.(1983). Contemporary Families and Alternative Life styles. Sage publications.
- 17) G.P. Murdock.(1949). Social structure. NewYork: Macmillan Co.
- 18) L. Larry. & J.M. Constantine.(1972). The Group Marriage pp.240-222 in M. Gorden(ed.), The Nuclear Family in Crisis. New York: Happer & Row publishers.
- 19) M.E. Spiro.(1956). Kibbutz-Venture in Utopia. Harvard university press.
- 20) M.E. Spiro.(1972). Is the Family universal? - The Israeli case pp.81-92 in M. Gorden(ed.), The Nuclear Family in Crisis. New York: Happer & Row Publishers.
- 21) Peter Laslett.(1983). Families in Modern Society pp.125-141 in Arlene Skolnick, The Intimate Environment. Little Brown and Company.
- 22) R.M. Kanter.(1972). Communes pp.173-179 in M. Gorden: The Nuclear Family in Crisis. New York: Happer and Row publishers.
- 23) R.M. Kanter.(1979). Communes in Cities pp.112-135 in John Case and Rosemary Taylor, Co-ops Communes and Collectives. New York: Pantheon Books.
- 24) Suzanne Keller.(1986). Dose the family hae a future? pp.520-532 in A.S. Skolnick & J.H. Skolnick, Family in Transition 5th ed. Little Brown and Company.
- 25) K. Bartölke., T. Bergmann. & L. Liegle.(1980). Integrated Cooperatives in the Industrial Society: the Example of the Kibbutz. Netherlands: Van Gorcum, Assen.